

CSF 이슈분석



2017-36

「KIEP 북경사무소」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내 반응

중
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 주요내용

- [배경] 2월 27일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승인 발표로 인해 중국 내에서 반응이 점차 격화되고 있음.
- [경제적 제재 조치 강화] 그동안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주로 경제적 보복 조치에 집중되었으며, 이번 발표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추세임.
- [외교·군사적 대응 제기] 최근 들어 경제적 조치 외에도 중단교(准断交)를 언급한 외교적 대응 가능성에 더해 군사적 대응마저 제기함.
- [평가 및 전망] 중국내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적 제재 조치와 더불어 새롭게 군사, 외교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됨.

1. 이슈 현황

■ [배경] 2월 27일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승인 발표로 인해 중국 내에서 반응이 점차 격화되고 있음.

- 2017년 2월 27일 롯데는 이사회를 열어 경상북도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한 대해 중국 내에서는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에 제기되었던 경제적 대응의 심화와 더불어 외교적·군사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경제적 제재 조치 강화] 그동안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주로 경제적 보복 조치에 집중되었으며, 이번 발표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추세임.

- 2016년 7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승인 한 이후 중국은 각종 경제 제재 조치를 강행해왔음.
 - 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상용비자발급 제한 △한류콘텐츠 제재(한한령) △양국교류활동 제한 △식료품에 대한 검역기준 강화 △여행분야 제한 △전기 차 인증조건 강화 △롯데 대상 세무조사 등 경제적 보복 조치 의 심 사례가 확대되어 나타났다고 보고함.
- 여기에 이번 롯데의 부지 제공 승인 발표 이후 2017년 3월 1일 환구시보(环球时报)에서는 사설을 통해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 강화 방안을 제시함.
 -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내부로부터 문제가 발생되도록 하는 방안이 낫다고 하며¹⁾, 중국의 소비자가 주력이 되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것을 주장함.
 - 주로 △ 관광산업 △ 문화산업 △ 전자제품 및 자동차 산업 △ 롯데 기업 제재 △ 한중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 협력 분야 등에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압박 카드를 제시함.
- 특히 이번 사드 부지 결정 승인을 내린 롯데에 대한 경제적 보복 뿐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함.

1) 이에 대한 환구시보의 표현은 ‘머리를 때려 피가 흐르게 하기 보단 내상(内伤)을 입히는 것이 낫다(不需让韩国“头破血流”让它内伤)’고 하였음.

-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사(新华社)를 비롯한 중국 각종 매체에서 롯데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각종 수입 및 투자 제한, 중국 내 프로젝트 진행 중단 및 취소 등 전방위 제재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²⁾
- 환구시보에서는 롯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 및 상품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함.

■ [외교·군사적 대응 제기] 최근 들어 경제적 조치 외에도 준단교(准断交)를 언급한 외교적 대응 가능성에 더해 군사적 대응마저 제기함.

- 2월 28일 인민일보 해외판 위챗페이지(微信公众号)의 샤커다오(侠客岛)에 따르면 “만약 한국에 사드가 들어온다면, 중국은 한국과의 ‘준단교’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후이진왕(汇金网) 또한 “14억 중국 인구를 분노케 한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 양국간 준단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도함.
- 뿐만 아니라 중국 군사과학원 고급싱크탱크 학술위원회(军事科学院国家高端智库学术委员会) 뤼위안(罗援) 특별위원은 3월 2일 환구시보 칼럼을 통해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10가지의 군사·외교적 대응 방안을 제시
 - 첫째, 사드 배치 지역(성주골프장 부지)을 대중국 군사 고위험 지역으로 선포하여, 필요시 사드에 대해 ‘외과수술식(surgical)’³⁾ 대응과 ‘하드 킬(hard kill)’⁴⁾의 실시 가능성을 제시
 - 둘째, 중국 주요 지역에 반 사드 대(對) 레이더 미사일(Anti-Radiation Missile)을 배치하여, 필요시 소프트 킬 방식으로 사드의 레이더망 파괴를 통해 무력화 할 수 있음을 제시
 - 셋째, 중국 미사일 발사 기지의 방호 역량 및 선제 타격 역량 강화
 - 넷째, 사드에 대응한 중국의 미사일 배치의 양적, 질적 증대와 동시에 선제 타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한국 측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억제
 - 다섯째, 러시아와의 군사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접경 지역 등의 전략적 균형 및 안정성을 유지하는 반(反) 사드 군사 협력 제시
 - 여섯째, 초국경 안보 및 지역 안보의 차원에서 미·일·한 측의 안보 위협 발생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해 중국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 제시

2) 롯데는 현재 중국 24개 성시에 진출해 120개가 넘는 판매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미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 2016년 중국내 롯데백화점 영업 수익이 9조원에 달하였음. 뿐만 아니라 롯데 면세점 매출의 약 70%를 중국인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힘.

3) 인체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 방법과 같이 갈등 부분을 쪽집게식으로 골라내 제거한다는 의미로 외과수술식 타격이란 말이 생겨남. 한마디로 한국 사드에 대해 군사적 방식으로의 제거를 의미함. 중국은 2016년 9월 진행된 북한 제 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북한 핵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 타격을 제시한 바 있음.

4) 하드킬은 대응탄으로 직접 위협체를 맞추는 것으로, 날아오는 로켓을 전차에서 포탄을 쏘아 떨어트리는 능동적인 방호 시스템을 의미함. 이에 반해 소프트킬(soft kill)은 위협체의 접근을 초기에 탐지해 위협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교란하거나 연막탄을 터트려 안전한 곳으로 빨리 회피하는 유도 교란 방식의 보다 소극적인 방호 개념임.

- 일곱째, 사드 배치와 관련된 산업체인 및 비즈니스 체인에 대해 전방위 보복 정책 실시
- 여덟째, 롯데 기업의 상품 및 각종 상업 행위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중국 내 진행 중인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취소 및 보류 시행
- 아홉째, 한국의 민감 지역(敏感地区)에 대한 중국 유커(游客) 규모의 제한 및 유커에 대한 안전성 경고를 통해 중국인 여행객들의 안전 확보
- 마지막으로 유엔 및 주(駐)중국 해외 기구 등의 대외 창구를 통해 사드 배치가 중국의 명백한 안보 위협이 됨을 일관되게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동의 및 이해를 이끌어 내어 국제 여론의 우세를 점함.

2. 평가 및 전망

■ 중국내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적 제재 조치와 더불어 새롭게 군사, 외교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됨.

- 중국 정부에서도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며,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필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경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사드 배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히 불만을 표시한다”며 “사드 배치 시 중국 측은 필요한 조치를 해 중국의 안보를 지키겠다.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언론 매체들 또한 롯데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필연적인 것이라고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인식 또한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보도함.
 - 중국망(中国网)은 “롯데는 이번에 위호작창(为虎作伥: 호랑이를 위해 창귀가 되다)하였으며, 만일 한국에 사드가 들어온다면 한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향후 중국의 경제적 제재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함.
 - 또한 환구망에서 2017년 2월 19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3%가 “롯데 사드 부지 계약 시 중국 내에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을 제시
- 중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그 당위성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응 또한 필연적임을 강조함.
 - 중국 사회과학원 한반도문제 전문가이자 중국 절강대학 한국연구소 리둔추(李敦球) 연구원은 “한국 또한 사드 배치가 북핵의 위협과 자국의 방위 주권에 입각한 정당한 행위이지만, 중국 역시 이로 인한 중대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입장이 명확하여 상호

간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국은 충분한 준비 및 대응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최근에는 기존의 경제적 대응에 한층 강화된 군사, 외교적 대응 가능성이 제시됨.
- 뤼위안(罗援)은 환구시보의 칼럼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매우 강경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기존의 경제적 보복 조치와는 별개로 더욱 적극적인 군사, 외교적 대응을 제시함. CSF

출처

1. ‘外交部：坚决反对乐天供地萨德 将坚决采取必要措施’, 「中国网」, 2017-02-27
2. ‘新华社：为虎作伥的乐天，中国不欢迎’, 「环球时报」, 2017-02-28
3. ‘社评：不需让韩国“头破血流” 让它内伤’, 「环球时报」, 2017-03-01
4. ‘乐天为虎作伥“萨德”入韩将使韩国自吞苦果’, 「中国网」, 2017-03-01
5. ‘惹怒14亿人，这个国家一条道走到黑！中韩“准断交”不是没可能’, 「汇金网」, 2017-03-01
6. ‘李敦球：围绕“萨德”较量的是意志和战略’, 「环球时报」, 2017-03-01
7. ‘罗援：反制“萨德”十策’, 「环球时报」, 2017-03-02

💡 CSF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